

강진만생태공원, 한국관광공사 안심 관광지 125선 선정

외국인 방문객 위한 관광지로 추천 “남해안 국제 관광시대 선도 역할”

강진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외국인 방문객(in-bound)을 위한 안심 관광지 125선에 강진만생태공원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인바운드 안심관광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외국 관광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로,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125개소를 선정했다. 강진만생태공원은 탐진강과 강진만이 만

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이 없는 열린 하구로 자연적인 기수역이 넓게 형성되고, 하구 습지에 인접한 농경지, 산지, 소하천 등의 생태환경이 양호해 다양한 생태자원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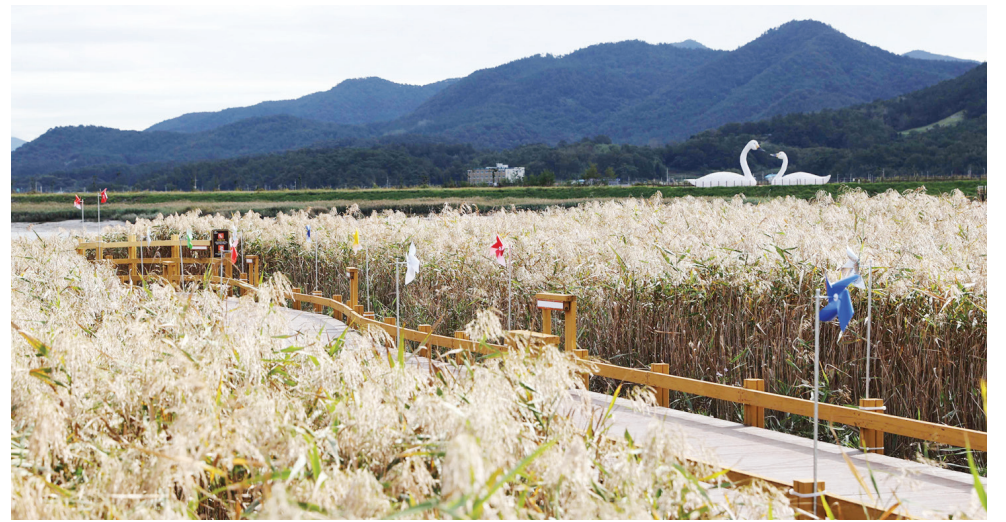
또, 1,131종의 다양한 생물이 사는 ‘생태 다양성’의 보고이며, 멸종위기종 수달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201-2호인 큰고니,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 겨울 철새와 망둥이와 농게

등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갈대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되면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겨울에는 갈대밭 위로 철새들의 아름다운 날개짓이 더해져 가을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김바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포스트코로나 및 여행안전권역 협정 국가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진만생태공원과 가우도, 사의재, 다산초당 등 강진의 역사 문화적 관광자원을 프로그램화 시켜 남해안 국제 관광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 흑석산 치유의 숲 본격 운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프로그램 다양화로 새단장

해남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흑석산치유의 숲을 본격 운영한다.

계곡면 흑석산 자락에 50ha 규모로 조성된 치유의 숲은 치유센터를 비롯해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치유숲길은 음이온 발생량이 많은 참나무 군락지를 중심으로 740m의 무장애 데크길과 350m 흑(黑)돌길로 조성돼 휴양객들이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치유 활동과 함께 치유센터에서는 산림치유 지도사가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존 상시 치유프로그램과 병행하면서 진행한다.

원데이 클래스로는 반려식물 분갈이, 꼬마 식물정원사(치유정원 원예치료), 숲속 요가, 식물세밀화과정, 숲인문학강좌, 치유글쓰기,

청소년 마음 다스리기, 숲길 노르딕워킹 등이 운영된다.

자세한 방문 체험 안내는 해남 흑석산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061-530-5734-5738)이나 치유의 숲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흑석산 치유의 숲은 해남의 대표산림 휴양시설인 흑석산 자연휴양림과 숲속 야영장, 유아숲 체험원 등과 연계해 있으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 구성으로 2020년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대상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흑석산치유의 숲에서 달랠 수 있을 것”이라며 “찾아오는 이들의 일상이 특별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올해 10억원 투입...지난 2016년부터 총 1,037동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진도군이 10억원을 투입,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 있는 낡은 슬레이트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주택과 축사, 창고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주택은 최대 352만원, 비주택(축사, 창고)은 1동당 200㎡이하 면적까지 철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 슬레이트는 오래될수록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호흡기 질환 유발로 군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실시해 지금까지 1,037동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군은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 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들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농어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립도서관, 전남 유일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완도군립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영준)가 주관하는 ‘2022년 제54회 한국도서관상’에서 단체상을 수상했다.

도서관 분야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도서관상은 매년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 전문 도서관, 학교 도서관 등 전국 1,300여 개의 기관 중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4월 12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이 개최되었으며, 단체 부문은 완도군립도서관이 전남 지역 공공도서관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

완도군립도서관은 1995년 개관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현재 금일공공도서관을 비롯한 3개 공립도서관과 민간 주도도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10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자책을 포함한 15만여 권의 장서서비스 중이며, 자료 수집 및 제공,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섬 지역 도서관 인프라 확충 등 군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다. 정광민 문화예술과장은 “문화 부문의 척도인 도서관 분야에서 큰 상을 받아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도서관과 책을 통해 치유하여 군민 모두가 더욱 행복해지시길 바란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연예예술인협회, 토요일시장서 ‘희망콘서트’

장흥군 연예예술인협회(회장 김용만)는 오는 16일 정남진토요일시장 상설무대에서 장흥군민과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후 1시 막을 올리는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아, 문선래, 김송림 등 지역가수들을 포함한 13명 내외의 출연진은 2시간 가량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흥군 연예예술인협회는 이번 토요일시장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지역 곳곳에서 군민이 함께 즐기는 공연을 2회 더 개최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는 공연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게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즐거운 일상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